시민기자의 한 컷

엉덩이 뗄 새도 없어

아주머니 엉덩이에 붙은 저건, 뭡니까. 방석이네요.

가을 한복판, 황금빛으로 물든 해남군 화원면 농촌 들녘에서 배추를 수확 하느라 바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얼기 전에 들판에서 배추 뽑느라 부지런히 움직이던 아주머니는 허리를 펴는가 싶더니 어느새 상자를 가져다 배추를 가지런히 모아 담습니다.

아주머니 허리에 달린 둥근 방석에 눈길이 가더군요. 쉬엄쉬엄 하면 될 것을 저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바쁜가요"물었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면 몰라"하십니다. 바닥에 깔고 앉은 방석을 옮길 시간도 아깝다고 하더군요.

넓은 밭에 골고루 심어진 배추 뽑으려면 조금씩 움직여야 하는데, 그 때마다 방석을 옮기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배추 한 포기 더 뽑겠다고 합니다. 귀찮기도 하다네요.

1년 중 가장 바쁜 가을, 농촌에선 걸어다니기만 하면 코흘리개 아이도 나와 도와야 할 때 아닙니까.

힘센 젊은 사람은 모두 떠나버렸고 일당을 줘도 일손 구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부지런할 수 밖에요. 그나마 배추값이 금값이라고 하니 조금 다행입니다. /최현배기자 choi@

I love MY student

가르친다는 것, 그 큰 즐거움

박 준 길

2007년 3월 1일자로 진도군 고군면 오산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스물 두 명의 아홉 살짜리 꼬마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처음 마주쳤을 때, 도시의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이 곳 어린이들에게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앞으로 어떤 지도를 해 주어야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다 보람을 느끼게 될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답은 며칠이 가지 않아서 나왔다. 급식 시간에 식사를 할 때 젓가락 사용하는 것을 보니 정말 너무도 엉망이었다. 우리 2학년은 말할 것도 없이 6학년들도 너무 엉터리였다. 바로 다음 날부터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 지도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반 특색활동으로 '젓가락을 바르게 사용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로 정했고 지도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나무젓가락을 준비 시킨 뒤에 젓가락 한 쪽 집기를 시켰다. 수직으로 곧게 잡은 뒤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게 중요하며 젓가락을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지도 하였다.

둘째, 나머지 과정은 검지와 중지와 엄지 세 손가락으로 젓가락 나머지 한쪽을 잡게 한 뒤에 검지와 중지를 '오므렸다 폈다'를 반복하여 젓가락을 쥐는 법을 익혀갔다.

셋째, 나무젓가락으로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쇠 젓가락으로 바꾸어 지도를 하면서 과자 집기 대회, 콩 집기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으며, 학용품 집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젓가락으로 집는 힘을 기르도록 하였으며, 보상으로 스티커 나눠주기 등과 아울러 경쟁심을 갖도록 한 결과 효과가 컸다.

지금은 24명(중간에 2명이 전학을 옴) 모두가 완벽하게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학부모들로부터 고마움의 전화를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처럼 한 번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은 도중에 고치기가 어렵고, 어쩌면 평생 동안 고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도 담임교사의 관심만 있다면,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고 자투리 시간만을 이용하여 지도를 해도 평생 동안 올바르게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 자판 익히기의 성공사례를 들고 싶다.

학년 초 재량활동 시간에 컴퓨터실에서 컴퓨터 수업을 하는데, 자판을 바르게 외워서 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한컴 타자 연습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자판 익히기 단계별 확인 카드'를 제작하여 읽기 책 앞표지 안쪽에 붙이도록 하여 활용하였는데, 내용은 자리연습 8단계, 낱말연습 8단계와 글 연습단계를 두어 철저히 단계별 지도를 하였다. 그래서 긴 글까지 통과한 사람은 마지막 단계인 타자검정을 볼 수 있게 하였다. 평균 주 1회 타자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학년마당 - 2학년 - 알림장 49번 글 참고)에 탑재한 것이 가장 최근의 결과인데 302타로 가장 빨랐다.

현재 학급 전체 어린이가 완벽하게 컴퓨터 자판을 익혀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한글 지도를 통하여 표 작성을 포함하여 간단한 문서 작성이 가능한 상태이다.

앞으로 컴퓨터 지도가 끝나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구구단 바르게 외우기를 거쳐서 주판지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모두 다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처럼 교사의 조그만 관심과 지도가 학생들의 양습관 형성과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볼 때 교직의 보람과 긍지를 다시 한 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진도 오산초등학교 교사〉

뉴스퀴즈 85·86회 김인유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85·86회 뉴스 퀴즈 추첨 결과, 김인유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김씨는 29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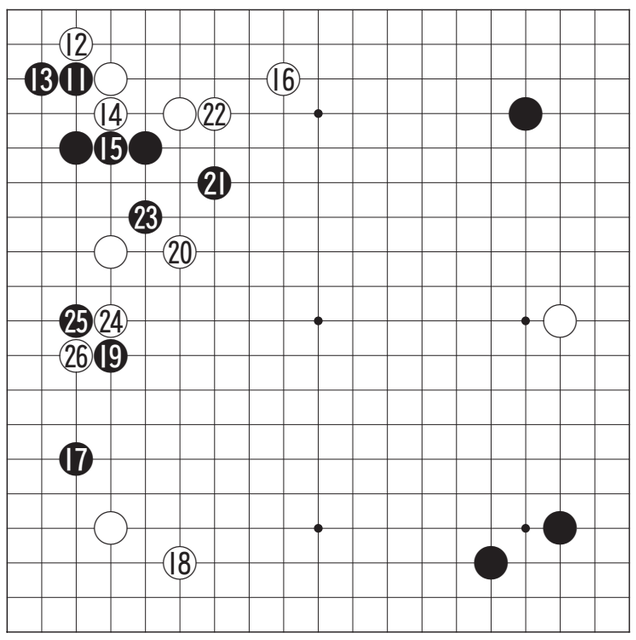
85·86회 뉴스 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54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본보 편집국 임수영씨가 추첨을 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김인유·광주시 북구 중흥동

2등 ▲김미정·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제1회 광주시 바둑협회 회장배 바둑대회 최강부 결승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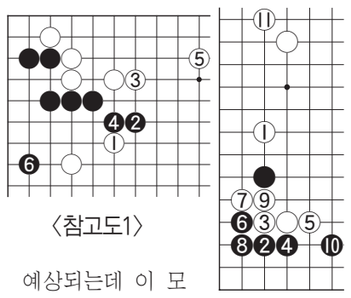
초반포석의 기로 2보(11~26)

白 심재욱 6단 黑 선계성 6단

좌상귀에서 고풍스런 정석이 출현하고 있다. 백 16으로는 '참고도1'의 백 1로 두는 수도 있었다. 그러면 흑은 2로 나가게 되고 3을 선수한 다음 5로 한칸 더 넓게 벌리게 된다. 흑도 6으로 달려 서로 불만이 없는 결과다.

두 대국자 정도의 수준이 되면 머리에 정석사전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 웬만한 정석은 수백가지가 입력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선계성 6단이 흑 17로 걸쳐왔을 때가 초반포석의 기로였다. 심재욱 6단은 알기쉽게 18로 받고 말았는데 이 수로는 '참고도2'의 백 1로 협공하는 것이 제일감이다. 그러면 11까지가 예상되는데 이 모양은 11이 위쪽 흑대마에 칼을 들이댄 형국이라 실전보다 좋아 보인다. 백 26으로 끊어 일찍부터 드잡이질이 벌어지고 있다.



〈참고도1〉

〈참고도2〉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세돌, 원익배 10단전 순항

이세돌 9단이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원익배 십단전 본선 2회전에서 박영훈 9단을 133수만에 흑 불계로 꺾고 16강전에 진출했다. 이 9단은 박영훈과의 상대전적에서 11승 7패를 기록했다. 이 9단은 16강전에서 원성진 8단을 제압할 경우 전기대회 준우승자인 백홍석 5단과 4강 진출을 다툰다.

한편, 16강전의 하이라이트로는 이창호- 송태곤, 박정환- 이영구, 최철한- 이정우, 목진석- 전영규의 대국이 꼽힌다. 우승상금은 3천500만원(준우승 1천500만원)이다. 전기 우승자는 안조영 9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뉴스퀴즈

87. 교육인적자원부가 법조인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원의 첫 해 총정원안을 2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최근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2009학년도 총 정원을 2천명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학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로스쿨 ②의학전문대학원
③치의학전문대학원 ④약학전문대학원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30일(음 9월 20일 丁酉)

子 36년생 인생의 후반전 계획이 중요하다. 48년생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60년생 너무 자신의 재주를 믿지 말고 준비. 72년생 힘 줄때와 힘 뺄 시기를 놓치지 마라. 84년생 아무리 친한 친구의 말도 다시한번 생각. 행운의 숫자:11,39

丑 37년생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 49년생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가려야 한다. 61년생 아들 딸과 대화를 하고 고민을 들어보라. 73년생 부부사이에 의무를 다하면 이별은 없으리. 85년생 형제 부모가 도우니 모든 일이 평온하다. 행운의 숫자:01,41

寅 38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고민했던 일들이 잘 풀려간다. 50년생 순리대로 행동하면 결과도 좋으리라. 62년생 이성으로 마음이 헛갈리니 중심을 찾아라. 74년생 울고 싶은 일이 생기나 어려운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11,21

卯 39년생 모르는 사람과 시비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51년생 구설수 시비 송사 등등 모든 것은 자신의 행동이 원인이다. 63년생 쌓아온 명성이 무너질까 걱정된다. 75년생 오래 동안 생각한 것을 결정해도 좋다. 행운의 숫자:31,33

辰 40년생 보고 싶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싫은 사람만 보인다. 52년생 시간은 지루하나 뜻하는 일은 이루어진다. 64년생 바쁜 하루가 된다. 76년생 애인이 생길 수도 있으니 과감하게 대시하라. 행운의 숫자:16,37

巳 41년생 절대 분수를 지켜야 화가 작아지리라. 53년생 욕심을 버리고 자중하라. 65년생 자신의 인생설계에 변화가 온다. 77년생 속단은금물이니 여유 있게 행동하면 뜻밖의 재물이 들어온다. 행운의 숫자:32,41

午 42년생 호랑이에게 개 꾸어주는 격이다. 54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난다. 66년생 주변에서 협력자가 나타나지만 큰 도움은 못준다. 78년생 일희일비가 있지만 꼭 좋지만은 않으나 과욕만 하지 않으면 대고는 없다. 행운의 숫자:12,43

未 43년생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나 좋은 일이다. 55년생 겉보기와는 다르게 일이 쉽지가 않다. 67년생 옛 감정은 잊고 화해하면 좋으리라. 79년생 가정 직장 자신사이에 불편사가 생기나 곧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13,34

申 44년생 문서상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다. 56년생 직장에서는 행동을 집에서는 말을 조심하라. 68년생 처음에는 어려웠던 일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80년생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으니 멋을 내보라. 행운의 숫자:25,35

酉 45년생 잘못된 옛 일이 자신을 괴롭히는 하루가 된다. 57년생 과도한 욕심이 없는 한 평안하다. 69년생 친한 사이에 새로운 사업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81년생 눈물보다는 웃음이 얼굴에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20,45

戌 46년생 남여사이에 구설수로 명예에 흠집이 날까 무섭다. 58년생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70년생 부자지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하니 기회를 만들라. 82년생 친구의 도움이 절실하니 예정을 놓치지 마라. 행운의 숫자:19,30

亥 47년생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살펴보라. 59년생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71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실이 없으리라. 83년생 작은 병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20,29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1022>

I was shortchanged.

거스름 돈을 덜 받았는데요.

A : Excuse me. I bought this shirt just now.
I think I was shortchanged.
B : Oh, really? Do you have a receipt?
A : Yes. Here you are.
B : Just a moment, please. Oh, I'm terribly sorry.

A : 실례합니다, 저는 방금 이 셔츠를 구입했었는데요.
거스름돈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B : 오, 그래요? 영수증 있으세요?
A : 네, 여기 있습니다.
B : 잠깐만요, .. 오! 정말 죄송합니다.

* shortchange : (~에게) 거스름돈을 덜 주다 ; 속이다.
* I was overcharged. : 저는 바가지를 썼어요.
* receipt : 영수증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022>

鼻水(はなみず)とくしゃみが止(と)まらないよ。

콧물과 재채기가 멈추지 않아

A : 鼻水(はなみず)とくしゃみが止(と)まらないよ。それに頭(あたま)も痛(いた)いし。
B : かなりひどい風邪(かぜ)ですね。病院(びょういん)で注射(ちゅうしゃ)を打(う)ってもらったらすぐ治(なお)りますよ。
A : ええ、でも仕事(しごと)が溜(たま)ってるし…
B : もっとひどくなったら, 仕事(しごと)どころじゃないですよ。

A : 콧물과 재채기가 멈추지 않아. 머리도 아프고.
B : 꽤 심한 감기군요.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나을거에요.
A : 네, 하지만 일이 쌓여 있어서…
B : 더 심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일할 때가 아니에요.

くしゃみ : 재채기
かなりひどい : 꽤 심하다
止(と)まる : 멈추다
注射(ちゅうしゃ)を打(う)つ : 주사를 맞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212>

真是个休闲的好地方

정말 레저 활동하기에 좋은 곳이네요

A: 这地方太美了。
Zhè difang tài měi le.
B: 是啊，是个休闲的好地方。
Shì a, shì ge xiūxián de hǎo difang.
A: 诸位喜欢，下次再来玩儿。
Zhū wèi xǐhuan, xiàcì zài lái wánr.
B: 一定再来。
Yídìng zài lái.

A: 이곳은 너무 아름답군요
B: 네, 이곳은 레저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A: 여러분이 좋아하니, 다음에 또 놀러옵시다.
B: 꼭 다시 와요.

休闲 [xiūxián] 레저 활동
诸位 [Zhūwèi] 여러분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7~8

한자 이야기 <639>

泥醉(니취)

진흙 니, 취할 취

니취(泥醉)는 진흙처럼 취한다는 뜻으로, 술에 몹시 취하여 흐느적거리는 상태를 말한다.

"이물지(異物志)"라는 책에 의하면, 남해(南海)에 사는 '니(泥)'라는 벌레는 뼈가 없어 물속에서는 활발히 움직이지만, 물이 없어지면 진흙처럼 된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사람이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는 것은 이 술벌레 '니(泥)'가 몸속에 들어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중국의 주선(酒仙)으로 불리는 이백(李白)은 20·30대의 젊은 시절에는 호북성(湖北省)을 중심으로 유람하며 세월을 보냈다. 양양 부근의 명승고적을 읊어 '양양가(襄陽歌)'라는 시를 남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옆 사람에게 묻노니 무슨 일로 웃는가 / 산공이 술에 취해 진흙 같아 웃는다네(笑殺山公醉如泥)"라는 구절이 있다. 이후 이백은 40대에 궁정시인이 되어 현종(玄宗)과 양귀비(楊貴妃) 앞에 불려나가 술과 음악을 갖춘 자리에서 시를 짓지만, '니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수많은 에피소드를 남기고 있다. 현종은 결국 이백에게만 궁정법도를 따르지 않고 술을 마실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석 잔을 마시면 크게 깨우치고 / 다섯 말을 마시면 자연(自然)과 합하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